

“9월 모평, 작년 수능·올 6월 모평보다 쉬웠다”

‘킬러문항’ 없고 평이해...실제 수능에서 변별력 높아질 듯 광주 진학 담당 교사들 “수험생들 국어·수학 깊게 공부해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 평가는 ‘불수능’으로 꼽힌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 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 고교진학담당 교사들은 소위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항)은 배제됐으나 평이하게 출제된만큼 실제 수능에서는 변별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진로진학지원단 진학 담당 교사 분석기가 4일 치러진 9월 모의 평가 문항을 분석한 결과 국·영·수 과목이 비교적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영역은 작년 수능과 지난 6월 모평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 EBS 교재 연계율이 높아 수험생이 더 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교사들은 진단했다.

신하돈 광덕고 교사는 “독서에서 사회, 기술, 예술 3개의 지문이 EBS 교재와 연계됐고, 문학에서도 고전시가(호아곡), 현대시(북방에서-전현웅에게), 현대소설은 EBS 연계 교재의 수록 부분이 그대로 출제됐다”며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도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지문에서 핵심 개념 등을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학 영역도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모평에 비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

문제풀이 기술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 배제됐고, 기본 개념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영광 승덕고 교사는 “특히 공통과목의 난도가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재해석하고 식으로 도출해 내는 등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는 공통과목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차함수를 찾아 미분계수를 구하는 21번(주관식)과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첫째항을 구하는 22번을 꼽았다.

영역 영역에서는 추상적인 문항은 줄고, 대부분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추론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 수험생을 당혹스럽게 하는 신유형 문항도 없었다.

문현철 광주석산고 교사는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 평가에 비해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EBS 연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까다로운 시험이었다.

문 교사는 “빈칸추론 문항과 글의 순서, 문장 삽



4일 광주시 남구 인성고 수험생들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한국교육평가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2154개 고교와 523개 지정 학원에서 실시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입 문항에서는 논리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호흡이 긴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집중력 있게 독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며 “여전히 중하위권 학생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진학담당 교사들도 수능이 9월 모평보다 변별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훈탁 시교육청 장학관은 “광주 진학담당 교사들은 국어·수학의 난도가 수능에서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이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학원가에서는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방침 이래 시험 가장 쉽게 출제돼 상위권 변별력 확보에 의문을

제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의해 증명까지 있는데, 최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 “영역 난이도 격차가 매우 심각해, 수험생이 9월 모평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전남 농민, 쌀값 대책 수립·양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쌀값 하락세가 멈추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와 영암군농민공동행동은 4일 오전 각각 광주시청과 영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들은 “정부는 쌀 한 가마(80kg) 가격이 20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8월 쌀값은 이미 17만원대까지 폭락했다”며 “본격적 수확에 들어서면 쌀값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농가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원인은 농민의 과잉 생산이나 쌀 소비 감소가 아니라 수입 쌀과 정부 재고미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40만 8000t의 외국 쌀을 의무 수입하는 탓에 공급과 수요 사이에 균형이 깨지고 쌀값 폭락이 반복되고 있

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들은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쌀 수입 중단,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지자체의 농민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영암군농민공동행동은 오는 10일 정부에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논 갈아엎기’와 집단 식발 등의 ‘영양농민 총결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산 평지·봉정마을 7일부터 시내버스 달린다

광산구, 송정97번 운행

경영난으로 노선이 폐선된 720-1번 마을버스 대신 송정 97번 버스가 운행을 나선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선된 720-1번 마을버스를 대신해 오는 7일부터 송정 97번 버스노선이 연장돼 광주시 광산구 명화·평지·봉정마을까지 운행을 한다.

명화(117세대, 204명)· 평지(64세대, 112명)·봉정(55세대, 102명) 마을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었던 마을버스는 지난 2022년 12월 12일 휴업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9월 13일 결국 노선 폐쇄 절차를

벌었다.

이에 광주시 광산구는 교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대체 교통수단으로 전세버스로 마을버스 노선을 대체 운행했다.

하지만 매달 1000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시내버스 운행요구가 지속되자 광주시는 기존 버스(송정97번) 노선의 연장을 결정했다. 또 위험구간 도로 개선공사가 완료된 것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명화마을, 평지마을, 봉정마을 입구, 봉정마을 총 4개 정류소를 추가로 만들었다. 기존 버스노선보다 왕복 4km구간이 추가되는 대신 운행 횟수는 하루 22회에서 18회로 줄어든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공교육 멈춤의 날” 1년...교권 보호도 멈춤

광주·전남 전교조, 시스템 강화 촉구

광주·전남지역 교사노조가 ‘공교육 멈춤의 날’ 1년을 맞아 교권 보호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사이소 교사 순직 이후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친지 1년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은 아직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년 전 오늘 광주와 전남 교원 5000여명

이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전남교육청에 모여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가르칠 권리를 요구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교권 추락, 교사 정신 건강 악화, 행정 업무 과중 등 교사를 둘러싼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약속했던 교권 보호시스템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교권 추락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은 악화되고 있다. 교사들은 여전히 학

부모의 민원과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당시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 약속을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악성민원 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법적장치 마련, 교사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확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갑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모든 교사들이 존중받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별초·성묘시 벌·뱀 주의보

광주시가 최근 이상 고온과 열대야 현상 등으로 벌 쏘임과 뱀 물림 사고가 늘고 있어 추석 명절 동안 벌초, 성묘 시 ‘주의보’를 발령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8월 광주 지역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총 3022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2%(820건) 늘어난 수치다. 벌 쏘임 인명피해도 지난해 29건에서 올해 71건으로 69% 증가했다.

뱀 출몰 또한 빈번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7-8월 광주 지역에서 뱀 포획을 위해 총 76건 출동하는 등 하루 평균 2건 넘게 뱀 출몰 신고를 접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등미술제

회화 | 서예, 문인화

회화

작품접수기간
2024. 09. 26.(목) - 09. 27.(금)

공모분야
장르: 평면 · 재질규격: 30호 ~ 50호
※ 서예, 문인화, 30호(가로 세로 135cm 이상)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 두구나(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작품내용
국내외 미발표한 순수한 창작 작품, 전시 중 파손 등 위험성이 없는 작품

작품접수
접수기간: 2024. 9. 26.(목) ~ 9. 27.(금)
원서교부: 광산문화원 누리집, 광산구청 누리집
※ 광산문화원 누리집 <http://gjangwangsan.kccf.or.kr> -영민담당-공지사항
※ 광산구청 누리집 <https://www.gwangsan.go.kr> -뉴스소식-새소식 게시판

출품 수: 1인 2점 이내
출품료: 1점 - 20,000원 | 2점 - 30,000원
※ 입금계좌: 농협 622-01-015031(예금주: 광산문화원, 본인명의로 입금)
접수방법: 작품이미지 파일 온라인 접수(gsc3377@hanmail.net)

심사방법 및 발표
1차 이미지 파일
※ 작품규격: 해상도 300dpi / 2,500x2,500픽셀 (차해당되는 상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차 실제작품 심사(1차 이미지파일 심사 통과 작품에 한함)
발표 10월 중순 예정

서예, 문인화

작품접수기간
2024. 10. 01.(화) - 10. 02.(수)

공모분야
서예 · 장르: 한문, 한글, 먹보(캘리그래피)
재질규격: 70cmx135cm(전 지) / 70cmx200cm(국전지)
문인화 · 장르: 문인화 · 재질규격: 70cmx135cm(전지)
※ 문인화 작품 제작은 참가자 부담으로 일괄 제작 예정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 두구나(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작품내용
국내외 미발표한 순수한 창작 작품, 전시 중 파손 등 위험성이 없는 작품

작품접수
접수기간: 10. 1.(화) ~ 10. 2.(수) 10시~18시
원서교부: 광산문화원 누리집, 광산구청 누리집
※ 광산문화원 누리집 <http://gjangwangsan.kccf.or.kr> -영민담당-공지사항
※ 광산구청 누리집 <https://www.gwangsan.go.kr> -뉴스소식-새소식 게시판

출품 수: 1인 2점 이내
출품료: 1점 - 30,000원 | 2점 - 50,000원
※ 입금계좌: 농협 622-01-015031(예금주: 광산문화원, 본인명의로 입금)
접수방법: 실제 작품으로 접수(발문 또는 우편)
※ 접수처: 62421 광주 상무대로265, 광산생활문화센터 2층 광산문화원
※ 우편접수는 10. 2.(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방법 및 발표
1차 실제작품 심사
발표 10월 중순 예정

추진, 초대작가 | 접수방법: 작품이미지 파일 온라인 접수(gsc3377@hanmail.net) | 심사규격: 해상도 300dpi / 2,500x2,500픽셀
지정서 발급 | 추천작가: 접수합계 13점 이상 획득한 출품자 | 초대작가: 추천작가로서 연속 5회 또는 8회 이상 출품자
 ※ 수상점수: 대상7명, 최우수상5명, 우수상4명, 특별상특선3명, 입선1명

시상내역

구분	회화	서예 · 문인화
베트남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 / 시상금 300만원 / 개인전 개최	-
이동대상	-	광주광역시시장상 2명 / 시상금 300만원 / 개인전 개최
최우수상	광산구청장상 3명 / 시상금 100만원	광산문화원장상 2명 / 시상금 100만원
우수상	광산구의회 의장상 0명 / 시상금 50만원	광산문화원장상 0명 / 시상금 20만원
특별상	광산문화원장상 0명 / 시상금 20만원	광산문화원장상 (학연상)
특입선	광산문화원장상 (학연상)	

※ 개인전 개최 및 시상내역은 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공모전 가이드 라인에 따라 당선 작품 귀속 없음. 단, 광산문화원-광산구청 누리집 게시, 전시회 개최 및 도록 제작에 필요한 작품의 저작권 재산권(등록출판권, 공연권, 복제권 등)은 행사 사용.

시상식 및 전시회

2024. 11.15.(금) 14:00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문의: 광산문화원 Tel. 062)941-3377
 (62421)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
<http://gjangwangsan.kccf.or.kr/>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시 이메일로 파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 타 대회 수상작을 제출하거나, 실제 작품이 제출한 이미지 파일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
 • 공모요강 위반 및 타인의 작품을 모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상은 자동취소 상장과 시상금 반환
 • 전시회 및 시상식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